

철창에 갇혀 눈망울이 슬퍼 보이는 일본원숭이. (동물원 위한 행동 제공)

‘빠빠용’ 우치동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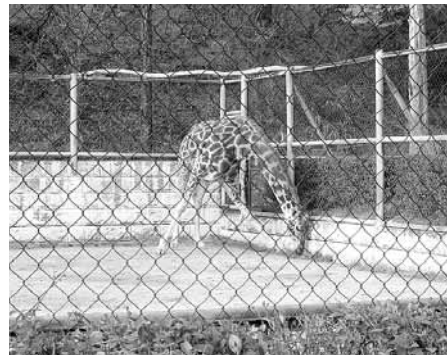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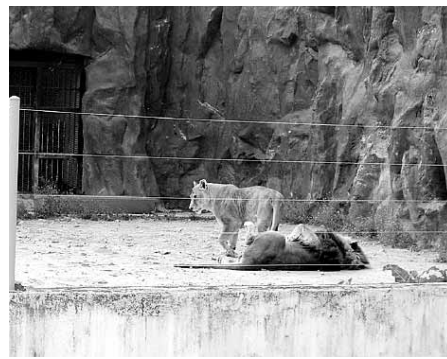
- 감옥 생활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보니
- 사자·호랑이 콘크리트 바닥서 땀땀 뿜며 ‘불안불안’
- 참수리 비좁은 공간 날지 못하고 수도꼭지 꼬아대
- 기린은 힘들게 고개 숙이고 바닥에 난 풀 뜯어먹기

‘동물원 위한 행동’ 보고서 “동물 복지 고려 리모델링 필요”

같은 것도 서러운데 비좁은 철창 우리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물들. ‘야생’ 뿐 아니라 ‘인락한 삶’조차 잃어버린 채 ‘감옥’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현실이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원 위한 행동’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한국동물원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간한 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은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맹수 우리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 가 하면 몸을 숨길 공간을 찾지 못한 맹수들은 불안한 듯 땀땀 흘리고 독수리나 참수리는

공간이 비좁아 날지 못한다. 우치동물원에선 동물의 존엄성·복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 단체 측의 설명이다. 면적 153㎡(46.2평)·높이 6m의 우리에 사는 참수리는 비좁은 공간에서 날기는 커녕 날개조차 자유롭게 펴지 못해 감박적으로 수도꼭지를 부리로 꼬고 있다. 특히 코끼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50km로 행동반경이 넓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인데, 우리는 고작 354㎡(107평)에 불과하다. 현재 이들 코끼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의미가 없는 행동을 일정하게 반복하는 행위)을 보이고 있다. 또 영장류인 침팬지 우리(면적 502㎡·151.8평)는 개체에 걸맞은 시설이나 자연과 흡사

하게 먹이 주는 행위 등 동물행동공부화 시설이 거의 없다. 호랑이·사자 우리는 바닥이 딱딱한 구조로 돼 있으며 좁고 은신처도 없어 맹수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기린은 자신의 눈높이에 나뭇잎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닥에 난 풀을 고개를 숙여 뜯어먹고 있다. ‘동물원 위한 행동’ 관계자는 “우치동물원의 경우 동물의 존엄성·복지보다 사육사들이 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지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관을 동물의 생태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해야 한다. 리모델링 땀 동물의 건강을 고려, 바닥에 흙과 풀을 충분히 깔아주고 면적을 충분히 넓혀 무료함을 피하고 행동공부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개원한 우치동물원엔 20동(85칸)의 동물 우리에 포유류 66종 272마리, 조류 47종 316마리, 파충류 25종 65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마리가 질병·부상 등으로 폐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864) 김장두



한노총 간부 성추행 의혹

한국노총 지역본부의 간부가 여성을 추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 간부 A씨가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달 말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일부 추행이 있었던 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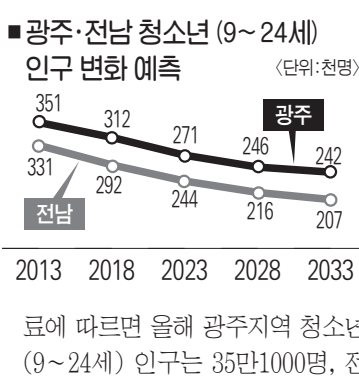
광주·전남 학생, 15년뒤 3분의1 줄어든다

〈초등~대학〉

68만2000명→46만2000명으로 ... 폐교 속출 불가피

호남지방통계청 예측

15년 뒤인 2028년이면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인구가 현재보다 3분의1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폐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전망이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호남지역 청소년통계’ 자



남은 33만1000명으로 지난해(35만6000명, 33만4000명)보다 각각 1.4%, 0.9% 감소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는 앞으로 급격히 줄어 광주의 경우 5년 뒤인 2018년 31만2000명, 2023년 27만1000명, 2028년 24만6000명, 2033년 24만2000명으로 20년 사이에 31%인 10만9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은 더 심각해 2018년 29만2000명, 2023년 24만4000명, 2028년 21만6000명, 2033년 20만7000명으로 37%인 12만4000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문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못된 심보’ 버스기사

차선 변경 시비 10원짜리 던져 승용차 흠집 도주

차선 변경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상대방 승용차를 훼손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모(21)씨의 모닝 승용차에 10원짜리 동전을 던져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

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임씨와 차선 변경문제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임씨가 욕설을 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종안 26번 시내버스였다”는 임씨의 진술과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을 토대로 운전기사의 신원을 찾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檢, 동합평산단 시행사 대표 등 들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합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로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주씨 등은 합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합평 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민 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합평군이 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시행사를 선정할 점 등을 적발,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착공한 동합평 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이 투입돼 산업시설용지 등 총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혁신도시 일부 공구 사전 준공 본격 수사 착수

전남개발공사 압수수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부 공구에서 이뤄진 사전 준공처리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전남

개발공사와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약·시공·준공 승인 등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혁신도시 조성공사의 발주처, 건설업체들은 시공에

참여한 곳이다. 앞서 전남도는 나주시 산포·금천면 일대에 조성 중인 공동혁신도시 2-1 공구 가운데 3개 공정의 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준공처리한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이 공구에서는 도로 곳곳의 지반이

내려앉거나 보도 경계석 부실시공, 우수관로 마무리 공정 미흡 등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전남 개발공사는 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전 준공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역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썸계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